

세월호 아픔·빈곤 국가 보듬고 자비 실천 노력

불교계의 2014년은 다사다난했다. 특히 종단 내외부 갈등과 스님들의 범계 행위는 눈살을 찌뿌리게 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빈곤국가 구호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자비 사상을 실천한 것은 큰 수확이다. 여기에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대형불사들이 잇달아 시작된 것도 눈길을 끄는 성과다.

신성민·노덕현·이이나·배현진 기자

1. 한국불교 선지식 송담 스님 탈종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중 한 명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평생을 몸담았던 조계종을 탈종했다. 관련 공고가 나오면서 세간에는 제2교구 용주사 선거에서 벗어났던 마찰부터 법인관리법에 대한 불만까지 다양한 요인이 탈종 선언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송담 스님은 탈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밝히지 않았고, 올해 동안 결계 법어에도 이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하지만 송담 스님의 제자인 우희중 서울대 교수가 참여하는 바른불교 재가불자 모임은 10월 14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송담 스님의 '수행가풍이 맞지 않다'는 말씀은 종단의 타락한 수행 풍토를 만들어낸 정치승들을 적절히 못한 중도들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정정하지 못한 출가자들이 더 이상 존경 받는 승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준엄한 경계"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 법인관리법 놓고 갈등 지속

올해 6월 조계종 중앙총회는 법인법을 폐기하고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명칭과 애매모호한 법 조문을 보완해 제정했다.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이 마감된 9월 30일까지 등록 법인은 절반에 달하는 수치였으며, 반불회 등 대형 사찰법인들이 등록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계종은 11월 중앙총회에서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해 사찰 보유 법인들의 문호를 확대하고 징계 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법인법 갈등이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관리법 제정 직후인 6월 30일 선학원 재단 이사장과 이사, 감사 스님들은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이후 선학원은 분원장 회의를 잇달아 열어 종단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결과적으로 10월 1일부터 승적과 사찰등록업무를 개시했다.

3. 불교, 세월호 아픔을 보듬다

불교계를 대표해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전담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사고 당일, 진도 항적(사지 법일)와 현직상황을 공유한 다음 저녁 8시 선발대 파견을 결정했

다. 그리고 이튿날 진도 실내체육관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실종·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신속한 의사 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가 참사로 번지면서 각계 각층에서 구호 물품이 답지하자 불교계는 법당을 마련하고 장기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펼쳤다. 가족들의 불안을 위로하고 공감해줌으로써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했던 것이다. 타종교계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기여했다는 외부 평가도 잇따랐다. 또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불교시민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배를 봉행하고 유가족과 함께 단식투쟁에 동참하는 역할도 자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을 위로 방문하기도 했다. 기도도 끊이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무사귀환 발원부터 희생자 추모제, 극락왕생 기원 수륙제등을 개최하며 사회의 아픔을 껴안았다.

4. 주요 종단들 대형 불사 추진

올해 주요 종단과 단체들은 굵직한 대형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 조계종은 핵심 주요 과제로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10.27법안기념관 등이 건립되는 성역화 사업을 통해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해원·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진각종도 3월 10일 진각문화국제체험관 및 교육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을 들여 부지 3,969.6㎡에 연면적 4,963㎡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규모로 건축된다.

선학원도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신축 불사에 들어갔다. 11월 20일 선학원은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991.74㎡ 규모로 지어질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기공식을 통한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5. 올해도 계속된 스님들 범계 행위

조계종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승가청규를 제정하고 승려법을 개정해 범계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신도 폭행으



5월 22일 자승 스님이 병목함을 찾아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 사무실 개소식 장면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 앞에서 수덕사 수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교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협력을 맺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왼쪽), 감성명 경찰청장



필리핀 타와안국립고 완공식에 참석한 학생들 (11월 26일)

로 물의를 빚은 스님 등이 문서 견책으로 낮은 형량을 호계원에서 받아 문제가 됐다. 여기에 음주 범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상좌 2명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 받게 됐고, 급기야 총무원 호법부는 급속령에 가까운 지침을 일선 사찰에 하달하기도 했다.

6.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 성과

5월 인사동의 한 경매장에서 도난문화재 3점이 조계종과 경찰의 긴급수사로 압수된 데 이어 수사 과정 중 한 사립박물관장이 은닉했던 불교문화재 48점이 회수됐다.

정당 추정가가 수억원을 웃돌았던 아니라 보물급 문화재도 10점 이상 포함됐다.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이미 충북 유형문화재 206호로 지정된 작품이었다.

문제는 이들 문화재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뒤 나온 것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또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법적 미비점도 발견됐다.

이에 조계종총무원, 경찰청, 문화재청은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상호협력적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7. 용성·만해 스님 선양 사업 잇달아

올해는 석전, 함암, 용성, 월하, 자운, 무진장 스님 등 근현대 고승들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선양사업이 대거 열렸다.

통사노천문도회의 3월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해암선사문화진흥회의 4월 해암 스님 사상 조영 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의 4월 석전·함암 스님 재조명 학술대회, 정토회의 5월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만해 열반 70주기 학술대회, 10월 승상 스님 열반 10주기 세계일화대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을 맞아 (사)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유물신행위원회, 장수 죽림정사, 정토대, 대각회 등 유관단체들이 모두 모이기도 했다. 세계일화대회에서는 전세계 제자 1000명이 태화산 전통문화수원에서 청년들에게 불교계가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8. '수행결사' 신행 트렌드로 부상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불자들끼리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하는 수행결사 모임이 수년째 꾸준히 열려, 질·참선을 지속해와 불교계에 귀감이 됐다.

매일 정각으로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전국 사찰을 순례하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

는 지난 5월 오프라인 모임 100회를 맞았다. 2004년부터 신도들과 다라니 정군을 이어온 일산 덕양선원(주지 법상)은 올해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회향하는 법회를 지난 4월 거행했으며, 수행정진의 열기는 경북 구미에서도 이어져 지난 11월에는 구미 수행회가 발족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일 해인사 백련암에서 전국의 불자들이 모여 3천배 정진을 해온 '아비라' 카페가 창립 10주년을 맞기도 했다.

9. 올해도 불교계 해외구호 사업 약진

올 한해 불교계 NGO 단체들의 활약도 꾸준히 이어졌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지난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 재건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6월 파월 초등학교 완공을 시작으로 6개 초·고교를 완공했다. 올해 9월에는 2010년 강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를 완공함으로써 현지인들이 지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설립 10년을 맞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축적해 지난 8월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로부터 특별 협의의 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NGO 자격을 부여받았다. NGO 문제에 관해 UN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UN 주체 관련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또 로터스월드는 2006년부터 시작한 캄보디아 국제의료봉사사업에서 지난 6월 개간 수술 1천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역시 한 해 동안 케냐와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학교와 핸드팜트 등을 꾸준히 완공해왔다.

10. 해외 유명 수행자 방한 '인기몰이'

수행과 명상에 대한 열기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해외 명상지도자들이 방한해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의 초청으로 구글 엔지니어이자 세계적인 명상가로 활동 중인 차드 명단이 방한해 명상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시청에서는 한국과 중국, 미얀마, 티베트에서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바른집중' 수행법회가 가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초기불교 및 금강승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얀마 파옥 숲속사원 수행지도자인 우실라 스님이 불자들을 대상으로 사미타·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했으며, 티베트 출신 아남 튜텐 린포체와 캐나다 출신 티베트 밀린 법사가 동국대 국제센터에서 글로벌 명상수행법에 대해 지도 방법론을 펼치기도 했다.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지...?”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신성불을 주시는
신비의 칠여래부처님 부산자비선원에 나투시다!

미래가 궁금하고 답답하신 불자들에게는 자비선원으로 오셔서
칠여래부처님을 진경하시고, 영험을 증득하십시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칠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출현해 나타나신 큰 노스님이 주장자를 위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배려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기던 중 개국 입구에서 아주 불꽃이 튀어오르는 듯한 불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여 앉아서 아주 황동색으로 변했다. 석정이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려 말입니까?" 하고 단행한 기색으로 물었더니 스님은 "이 모든 세 모든 티끌이든 사정님이 알아서 다들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이 다들어서 왔다. 그 돌을 신중으로 옮겨 놓고 다게물을 올리기를 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움직이지 않으니 스님이 기뻐서 "이 돌이 움직이지 않으니 기뻐서" 라고 말했다. 스님이 기뻐서 "이 돌이 움직이지 않으니 기뻐서" 라고 말했다. 스님이 기뻐서 "이 돌이 움직이지 않으니 기뻐서" 라고 말했다.

- 다보여래부처님 : 입시·시험·고시응시생, 재만계류 해결
- 보승여래부처님 : 행복, 재물 축적, 백만장자의 지름길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결혼인연, 득남 발원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체결 성사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공황장애·우울증·병의 등 병고해탈
- 아미타여래부처님 : 극락왕생, 48가지 소원성취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친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